

기독교학문을 위한 변명: 학문의 자유인가, 기독교적 정체성인가?

이경직 (백석대 기독교철학과)

근대 사회에서 학자들은 자신들이 학문의 대상을 설정하고 학문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것이 가치중립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저서에서 과학의 발전이 하나의 체계가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되는 혁명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혁명과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소위 과학적인 과정을 거치기보다 때로는 직관이나 편견, 고집, 사회적 권력구조 등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쿤의 이러한 생각을 더 밀고 나가면 파이어아벤트(Feyerabend)와 같은 과학 부정주의(anarchism)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소위 과학의 발전이라는 말은 무의미하며,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라는 말도 잘못으로 드러난다.

토마스 쿤이나 파이어아벤트보다 훨씬 앞서 학문의 중립성이 일종의 신화임을 밝힌 학자가 있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 위에서 법철학을 전개했던 도예베르트(Doyeweerd)가 그 사람이다. 그는 학문의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 뿌리가 모든 학문의 기초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예견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도예베르트는 이를 기독교 신학과 연결하여 설명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향한 학문이거나 하나님을 등진 학문이다. 두 종류의 학문 사이에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 그의 강한 주장이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주장을 학문에 적용한 결과이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도예베르트 등에 따르면, 학자들이 학문을 할 때 이미 특정 세계관이 그 학문 또는 학문활동의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관점주의’(perspectivism)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논리실증주의의 독재에서 벗어난 오늘날 대학교들은 이를 인정하기에 특정 주제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흑인의 관점에서,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을 허용하며, 그런 관점을 지니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학회도 인정하며 그런 종류의 학회지도 인정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일종의 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가 대학사회를 지배하는 셈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많은 대학들과 학자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을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비학문적인 일로 여긴다. 예를 들어 모든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독교적 연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모든 대상과 문제를 향한 연구라기보다 특정 대상, 즉 종교적 대상을 향한 연구로 이해된다. 또한 관점이나 방법이 아니라 대상이 기독교 학문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해한다. 이는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대학들과 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편견과 적대심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적대심의 배경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날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현대 학계의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 배후에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학문은 19세기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기독교 내지 신학으로부터의 자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세 대학은 기독교와 신학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과정이 이루어졌다. 신학이 모든 학문을 통제하는(control) 중심 학문이었다. 근대 철학자 칸트(Kant)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경험 데이터가 없이 추론만 전개하는 일을 순수이성의 일이라고 보고 비판했다. 이때부터 학문 내지 과학은 경험에 기반을 두어야 하게 되었으며, 인간 경험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신적 존재나 형이상학적 존재는 경험적 이성의 탐구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그러한 신적 존재나 형이상학적 존재는 인간 윤리의 보편타당성을 위해 요청될 수만 있는 존재였다. 그 결과 신학과 형이상학은 모든 학문을 통제하는 중심 학문의 자리에서 밀려났으며, 그 자

리를 경험과학이 차지하게 되었다.

19세기 유럽, 특히 독일의 학자들은, 예를 들어 훔볼트(Humbolt)는 학문의 자유(freedom of scholarship)를 대학의 중심 이념으로 제시했다. (훔볼트는 그러한 대학 이념에 따라 훔볼트 대학교를 설립했다.) 이 때 훔볼트가 말하는 자유는 국가나 기독교의 통제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 공동체 안에 무제한적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 공동체가 나름대로 설정한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논문작성법, 학회 회칙 등이 그것이다.) 훔볼트가 말한 학문의 자유는 특정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할 뿐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in Amsterdam)는 개신교적 교육이념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나 가톨릭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다. 네덜란드가 강조하는 관용(tolerance)이나 자유(freedom)는 작은 국가인 네덜란드가 가톨릭 국가 프랑스로부터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확보를 하기 위해 주창된 것이다. 지금은 그 이념이 변해서 동성애 결혼 허용 등 원래의 의도와 떨어진 것도 역사적 아이러니이다. 이는 원래 주장된 관용과 자유가 사회적 맥락이 달라지면서 다르게 이해된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20세기 대학사회를 지배했던 '학문의 자유'는 학문과 연구의 절대적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도예베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20세기 대학은 기독교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또 다른 이념과 규범에 묶이게 되었다. 가치중립적인 자유지대란 없는 셈이다.

그런데 기독교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 20세기 대학을 지배함에 따라 대학평가나 학자들의 업적 평가 등을 맡는 기관들도 그 입장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대학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대학이나 학문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신학 분야나 기독교학문 분야에 비해 기독교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분야가 전국규모 학회와 등재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다. 기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연구프로젝트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을 비롯한 학술지원기관의 심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특정 종교를 위해 지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학술지원기관의 재원을 제공하는 세금 납부자 가운데 800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강조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예를 보면, 루이지아나 침례교대학(Louisiana Baptist college)는 성경무오류성을 옹호하는 교과과목을 가르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미국남부 대학연합회(SACS,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에 의해 인증을 보류당했다. 역설적으로, 최근 침례교 대학인 베일러 대학교(Baylor university)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진하던 로버트 슬로언(Robert Sloan) 총장을 2005년 5월 31일에 사임하게 했는데, 그를 반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은 신앙의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는 침례교 전통과 맞지 않는다는데 있었다. 결국 학문의 자유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반대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대학은 기독교로부터의 자유를 근간으로 성립되었기에 다양한 관점들을 인정하는 소위 다원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학자와 기독교 대학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존 학문계의 평가 기준 등을 세속적이라고 여기면서 외면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신학자들은 신학교의 평가기준이 세속 대학교의 평가기준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 주장은 상당 부분 옳은 주장이다.), 대학평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이 태도는 신학 내지 기독교학문과 비신학 내지 비기독교 학문을 대상과 영역을 중심으로 나누는 이원론적 태도이다. 기독교 대학의 경우 이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채플이나 성경과목, 신학이나 기독교 학부의 교육과 연구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른 학부나 전공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태도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이 태도는 기독교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홈스쿨링을 통해 진학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소규모 복음주의 기독교대학들에서, 예를 들어 2000년에 개교한 패트릭 헨리 칼리지(Patrick Henry College)에서 고전학 교수 노이(Noe)와 4명의 교수는 논문과 강의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교 방침을 학문의 자유의 위반으로 여겨 학교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노이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노이 교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인간의 구원을 개인 차원에서만 이해함으로써 구원의 사회적, 우주적 의미를 간과한 셈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뛰어나다고 해서 기독교 학문에 바로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원사역을 인정하는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를 두어야 기독교 학문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기독교 학자와 기독교 대학이 기존 학문계의 평가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논문작성법이나 학회의 관행, 대학 평가의 기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예: 교수대 학생 비율, 강의평가 방식, 학부제) 받아들여되,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평가 기준으로 담아낼 수 없는 기독교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 대학들 사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체 대학 협의회와 학계의 평가 기준에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같은 연구지원기관을 외면하기보다 그 기관의 평가, 심사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이 반영된 평가기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신앙과 학문』, 『통합연구』, 『기독교철학』 등과 같이 기독교적 학문을 추구하는 학술지들을 등재지로 만들어으로써 대안적 패러다임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독교학자층이 열기 때문에 기독교학문학회, 통합연구학회 등 복합학 형태의 학회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독교경영학회, 기독교국문학회, 기독교영문학회, 기독교역사학회 등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학문을 하는 전문학회들과 학회지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각 전공분야가 연구되고 그 연구결과가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 교과목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주제를 다룬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각 실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할 때 기독교 대학은 더 좋은 교육기관이 될 수 있으며, 기독교적 관점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 공통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각 학문연구는 분과화되고 세분화되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의 통합적 성격을 띠게 된다. 오늘날 대학교는 너무 전문화, 분과화를 걸어 같은 학과 안에서도 옆의 교수의 전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이는 결국 지식의 파편화를 가져오며, 하나의 통합된 학문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때로 같은 학과에서 서로 모순되는 결론을 내고 있지만 이를 서로 모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대학교는 university가 아니라 multiversity가 되고 말며, 각 학과가 하나의 대학교 안에 놓여 있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 오늘날 학제간 연구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인간과 사회는 각 학문분야의 관점에 따라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적, 종교적, 심리적 측면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온전한 경제학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 안에서의 연구는 개인의 고독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연구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안에서 교수가 학생을, 학생이 학생을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 사이에 정직하고 건설적인 비판적 대화가 오가기가 힘들다. 이는 유능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무능한 학문공동체를 낳을 수도 있다.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학문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롭

고 활발한 토론과 비판이 있어야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한 교수가 대외적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 그 초고를 같은 전공교수들과 함께 읽고 철저한 비판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켜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켈리 제임스 클락(Kelly James Clark) 교수는 칼빈 칼리지 철학과 교수들 사이의 그러한 공동체적, 상호협조적 비판이 서로의 학문적 수준을 높였다고 자랑한 바가 있다.

물론 비기독교 대학교 안에서 기독교 학자는 개인 차원과 학회 차원에서 기독교 학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학자는 대학교 차원에서 커리큘럼에 기독교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기독교 학문을 할 수 있다. 이는 커리큘럼에 기독교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독교 대학과 비기독교 대학 사이에 차별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교육이 과연 오늘날 대학의 학문과 연구에 해가 되는가? 일단 기독교 학문은 기독교 신학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기독교적 신앙고백을 반영하는 아이디어들이나 개념, 가치를 다루어야 한다. 기독교 학문은 경제적 실재, 사회적 실재, 정치적 실재뿐 아니라 궁극적 실재까지도 설명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학문 덕분에 학문 세계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학자들에게 탐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예를 들어, 기독교 정치학자는 기독교 신앙이 정치 행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함으로써 정치학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기독교 학자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었으면 무시했을 방향으로 학문 연구를 끌고 나감으로써 기존 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기독교의 “원죄”(original sin) 개념을 통해 지나친 낙관주의를 사회윤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동인을 얻는다. 기독교 학자들이 비기독교 저술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에 대해 잘 아는데 반해 비기독교학자들은 기독교 신학자들, 예를 들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는 비기독교 학자들의 독서폭이 좁음을 나타내며, 기독교 학자들의 풍성한 기여에 대해 무지함으로써 그들 학문의 폭을 좁힘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피터 싱어(Peter Singer)와 헬다 쿠세(Helda Kuhse)가 편집한 *Companion to Bio-Ethics* (Oxford: Blackwell, 2001)에는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는 주제들이, 예를 들어 인격, 낙태, 인구 문제, 산모와 태아의 관계, 태아 검진, 배아 복제, 유전자 치료 등의 항목들이 다루어지는데 반해 이 주제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나 신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하지만 마스텐이 지적하듯이, 사실 기독교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비기독교 학자들은 그들의 생각보다 더 기독교적 통찰에 기댄다. 도덕 상대주의로부터 벗어나 도덕의 보편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사실 서양 윤리는 암묵적으로 신이 도덕을 만들었음을 전제한다.) 또한 인식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인식의 확실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기독교 학자는 성경이라는 계시가 참임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학문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는 않을까? 오늘날 대학이 성경 계시 또는 교회의 권위로부터의 자유 위에 운영되기 때문에 기독교 학자는 이런 비판을 받는다. 특히 성경 계시를 인식의 확실한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과 공개 토론을 할 때 성경 계시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합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학자가 성경 계시를 전제로, 성경계시를 자신의 관점으로 삼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 학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계시를 논증의 근거로 삼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신앙과 학문』에 투고되는 논문에서 성경 본문을 근거구절로 제시하는 것은 인정되며 환영받는다. 또한 기독교 학자는 그들이 봉사해야 할 대상이 비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창조과학회가 한국교회 교인들을 위해 그들의

연구결과를 쉽게 알리는 봉사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를 한국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백석대학교와 같이 특정 교단과 인준관계에 있는 기독교 대학의 경우 이 사명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기독교학자들은 합동정통 총회의 교육국과 연계해서 각 지교회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학적 성과를 내놓아야 하며, 이를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여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재 개발, 강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각 교회가 기독교학자들을 교육받아야 할 신도로만 대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사명을 풍성하게 할 지체로 여길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의 다수가 대학졸업자가 되는 21세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 학자들은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기독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일반적 원리를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 기독교 경제학자는 경영이나 무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인지를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석대학교와 같은 기독교 대학 안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각 학문을 하는 연구소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기독교 경영연구소, 기독교 음악 연구소, 기독교 역사연구소, 기독교 복지연구소, 기독교상담연구소, 기독교미술연구소, 기독교문학연구소, 기독교문화연구소, 기독교정치연구소, 기독교법학연구소 등과 같은 연구소가 세워지고 그 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학문분야와 삶의 영역에 기독교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며, 그 연구결과가 커리큘럼을 통해 기독교대학생들에게, 일반 대중강좌 등을 통해 일반 교회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뛰어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여 비기독교적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학문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유자들을 배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주요 기독교대학들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탁월한 학문적 수준을 갖추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있는 학회에서 성경계시를 논증의 근거로 삼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일종의 변증적 전략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때 기독교학자는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의 논의주제나 입장을 선택하지만, 그 주제 선택이나 입장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주제나 언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식론과 관련된 논의에서 기독교철학자들은 관념론보다 실재론을 선택한다. 실재론이 더 성경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학계에서 실재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철학자들은 성경구절을 제시하기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들이 실재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동기는 성경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독교학자는 자신의 학문연구의 근거를 성경계시에서 찾는 일과 더불어 그 계시를 일반 학문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 언어, 일종의 에스페란토(Esperanto) 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번역이 원어를 백퍼센트 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며, 원어에는 없는 새로운 의미를 첨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